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채용공고 지난 2021년 이래 최저치
- Bloomberg: 미 중산층 대다수, “재정적으로 힘들다”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상승세... 일자리 감소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여

[물류]

- WSJ: 머스트, 해운 운임 상승에 가이드스 다시 상향 조정

[오일]

- WSJ: 오일 가격 추가 하락... OPEC+ 회의 이후 공급 우려로

[에너지]

- CNBC: 미 원유가격 배럴당 73불 밑으로 하락
- NYT: 전기차 갑자기 저렴해지고 있다

[미중 반도체]

- WSJ: 중국 반도체 기업의 목표는 ‘미국 기술 의존 줄이기’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주일 미국 대사, “중국의 수출 확대가 미국과 동맹국 단합 강화할 것”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저가 메뉴 전략으로 구매 유도
- Bloomberg: 유나이티드 항공, 소형 보잉 비행기로 항공기 계획 개편
- CNBC: 일론 머스크, 테슬라용 AI 칩을 X와 xAI로 배송하도록 요구
- CNBC: 인텔, 새로운 AI칩 발표로 엔비디아와 AMD에 대응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 Openings Fall to Lowest Since 2021 in Broad Cooldown

미 채용공고 숫자 지난 2021년 이래 최저치

- 4월 미 일자리 숫자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이 계속 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 4월 구인 가능한 일자리는 3월 8백36만개에서 8백6만개로 줄어들었다고 오늘 화요일 연방 노동청 설문 결과 밝혀졌다.
- 이같은 감소는 실업자 한명당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숫자인, 즉, 연준이 예의 주시하는 구인 비율이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다. 이같은 감소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나타났다.
- 보건 분야가 3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제조 분야도 지난 2020년 말 이래 가장 낮았다. 정부직 수요도 줄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ajority of Middle-Class Americans Say They Struggle Financially

미 중산층 대다수, “재정적으로 힘들다”

- 중산층으로 간주되는 미국인 2/3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남은 앞으로의 삶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National True Cost of Living Coalition.가 주관한 설문에서 밝혔다.
- 전통적인 지표들에서 볼 때 미 경제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이같은 지표로서는 수백만 가구가 저축과 미래가 힘들다는 상황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 2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인 가족 최소 연 6만불 이상, 즉 연방 빈곤선의 2백% 이상인 사람들의 65%가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they are struggling financially)
- 4인 가족으로 15만불 이상 버는, 이른바 연방 빈곤선의 5배 이상 버는 미국인들의 25%가 각종 공과금 지불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Gain as JOLTS Spurs Faster Fed-Cut Bets: Markets Wrap

국채 상승세... 일자리 감소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여

- 오늘 발표된 미 일자리 감소로 노동시장이 둔화되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채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연준 스왑은 오늘 아침 일자리 발표 직후 올해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 예상을 반영하고 있다. 10년물 국채는 6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32%를 기록 중이다. 주식은 낮은 하락세를 보이며 주춤하는 모양이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Maersk Lifts Guidance Again on Surging Freight Rates 머스크, 해운 운임 상승에 가이드언스 다시 상향 조정

- 덴마크 소속 대형 선사인 머스크가 거의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올해 하반기 가이드언스를 상향조정했다. 홍해 지역의 혼란과 강한 선박 운행 수요로 인해 글로벌 운임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홍해 지역에서는 예멘의 후티 위협으로 인해 선박들이 여전히 우회 항해하고 있다.
- 머스크에 따르면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항만 혼잡이 심화되어 운송 능력이 묶이는 데다 운임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유럽 노선의 선박 능력이 15%에서 20% 감소했다. Drewry Shipping Consultants의 세계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5월 30일 끝나는 주에 4천2백26볼로 상승, 지난 4월 25일 주 이래로 56%가 올랐다.
- 중국 상하이에서 로스젤레스와 Rotterdam까지 주요 노선은 5천볼을 상회하고 있다.

WSJ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Drop Further on Post-OPEC+ Supply Worries 오일 가격 추가 하락... OPEC+ 회의 이후 공급 우려로

- 오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계약물은 오늘 화요일 1.5% 이상 떨어진 배럴당 77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미국 벤치마크인 서부텍사스 중질류도 떨어져 에너지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 지난 주말 OPEC+ 회의 이후에 특히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 분석가들에 따르면 OPEC+의 자발적인 감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오일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어 트레이더들은 공급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CNBC: U.S. crude oil extends losses, falls below \$73 per barrel on OPEC+ increasing supply**미 원유가격 배럴당 73불 밑으로 하락**

- 미 원유가 화요일 거의 2% 하락했다. 올해 상승분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있는데 OPEC+가 오는 10월부터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미 오일은 5인 연속 가격이 감소했는데 7월 계약분은 월요일에 3.6% 하락했다.

CNBC 기사

NYT: Electric Cars Are Suddenly Becoming Affordable**전기차 갑자기 저렴해지고 있다**

- 테슬라, 포드, GM,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이제 낮은 가격으로는 2만5천불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 이유는 생산에 더 효율적이고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상호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제는 풀 충전할 경우 3백마일 이상 운행하고 충전 시간도 30분 미만이다. 1시간 미만의 충전할 수 있는 기기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6% 늘었다.

NYT 기사

[미중 반도체]

WSJ: The Goal for China's Chip Giant: Cut Out the U.S.**중국 반도체 기업의 목표는 '미국 기술 의존 줄이기'**

-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 수석의 목표에 따라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 베이징 외곽의 징청에 위치한 SMIC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 생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기술 의존도를 없애기 위해 진행 중인 “Delete A”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캠페인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US and Its Partners Stand Together as China Exports Problems, Rahm Emanuel Says 주일 미국 대사, “중국의 수출 확대가 미국과 동맹국 단합 강화할 것”

- 주일 미국 대사 램 이매뉴얼은 중국이 국내 수요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단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좋은 이웃 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하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또는 전략적 도전을 받고 있지 않은 이웃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 또한, 그는 중국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하고 있어 무역 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요 7개국(G7)이 중국을 비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Fast-food franchise owners and squeezed customers test the limits of the value meal economy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저가 메뉴 전략으로 구매 유도

- 최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이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일시적으로 메뉴 가격을 낮추고 있다. 맥도날드는 이번 달에 5달러 메뉴를 제공하고, 웬디스는 3달러 아침 식사를 출시했습니다.
- 이러한 저가 메뉴는 영구적으로 메뉴에 포함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며, 차후에 비용이 오를 경우 레스토랑은 판매할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된다.
- 이에 존스 홉킨스 경영대학원의 Shubhranshu Singh는 “고객이 저가 메뉴를 소비한 뒤 더 많은 것을 구매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소비자가 저가 메뉴만 구매하고 가버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한적으로 저가 메뉴가 제공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CNBC 기사

Bloomberg: United Air Shifts to Smaller Boeing Planes Amid Production Woes

유나이티드 항공, 소형 보잉 비행기로 항공기 계획 개편

-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기 계획을 개편하면서 매달 6대의 보잉사 737맥스 9 제트기를 인도받고 있으며 대신보잉 737 Max에 대한 주문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나이티드 항공의 CEO Scott Kirby는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의 연설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주문 축소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 원래 유나이티드는 2백대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옵션과 함께 2백77대의 Max 10을 주문했고, 올해 80대를 인도받을 예정이었다.

Bloomberg 기사

CNBC: Elon Musk ordered Nvidia to ship thousands of AI chips reserved for Tesla to X and Xai

일론 머스크, 테슬라용 AI 칩을 X와 xAI로 배송하도록 요구

-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AI 및 로봇 공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고가 프로세서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주주들에게 과장된 언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엔비디아 고위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를 위해 엔비디아에 수천 개의 AI 칩을 주문했지만, 이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회사인 X와 Xai에 배송하도록 명령했다.
-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5억 달러 이상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 수주를 수개월 연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형 로봇 개발에 필요한 슈퍼컴퓨터 설치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CNBC 기사

CNBC: Intel unveils new AI chips as it seeks to reclaim market share from Nvidia and AMD

인텔, 새로운 AI칩 발표로 엔비디아와 AMD에 대응

-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은 화요일에 데이터 센터용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이틀 동안 발표된 경쟁사 엔비디아 및 AMD의 새로운 칩에 대응하는 것이다.
- CEO Pat Gelsinger는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기술 컨퍼런스에서 인텔의 제온 6(Xeon 6) 프로세서가 이전 제품에 비해 고강도 데이터 센터 업무에 더 나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발표는 라이벌인 엔비디아와 AMD가 각각 일요일과 월요일에 새로운 AI 칩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CNBC 기사

"미국 제조업·건설지표 예상보다 하락...경기부진 가시화"

"금리인하 기대감 살아나며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

미국 제조업체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와 건설지출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나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7을 기록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